

불교 여성관 왜곡의 역사 밝힌다

불교의 여성성불 사상

이창숙 지음 | 인복스 펴냄 | 1만 5천원



세상 사람의 절반은 여성이다. 아니 세상사람 모두 여성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대부분 여성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에서 나아가 나라에 행복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이 지구 전체가 평화로워지는 주춧돌인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도 차별받는 여성이 많다. 인도의 경우는 더더욱 심하다. 그런데 그 옛날에 여성이 성불해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대신 사자후를 설하고 부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일이다. 이 것만으로도 <승만경>이 주는 메시지는 크다.



부처님 여성 존재 차별 안해

경전속 차별적 언설은 방편

저자, 새 패러다임으로 여성 성불 제시

젠 큰 산이었지만, 저자는 머리말에서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회고한다.

연구 끝에 저자는 부처님께서 여성이라는 존재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경전에 나타난 차별적인 언설은 방편일뿐이라는 결론을 밝혀낸다. 또한 부파불교에 와서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왜곡이 생겼고, 대승불교 초기에는 여자가 남자몸으로 변해야 성불할 수 있다고 하고, 중기 대승불교에서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저자는 <승만경>이 바로 그 결론의 중심에 서 있는 경전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불교에서 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이뤄졌는지, 밀도 있는 경전 분석을 통해 여성성불관의 변천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붓다의 후계자들이 왜곡한 부정적인 여성관을 바로 잡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사상적 패러다임으로서 여성성불을 제시해 새 시대를 이끌 종교로서 현대불교의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불교의 여성성불관은 불교 사상의 전개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왔다. 초기불교에서 극도로 부정적인 여성관이 지배하던 인도 사회에서 여성을 교화 대상으로 삼고, 여성 출가를 허용한 것은 하나의 혁명이었다. 마하파자파티를 필두로 한 여성들을 교단에 받아들여 남성과 동등하게 정신세계의 동참자가 되게 함으로써 평등사상을 실현하고 비구니 교단을 성립한 불교의 진취성은, 인도 사회의 강고한 사성제를 부정하고 성불에도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붓다의 여성관 덕분이다. 그러나 초기경전에는 붓다의 보수적인 여성관이 드러난 구절도 많이 발견된다. 저자는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백 세 비구니도 처음 수계한 비구를 공경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계율인 비구니팔경법이다. 여성 출가를 허용하며 조건부로서 여성에게 부여한 비구니팔경법 외에도 대승 시대에 나타나는 여성심야사, 여인오장설 등은 오늘날까지도 여성 차별 근거로 악용되며 여성성불설에 힘을 실어왔다는 것

이 저자의 주장이다.

여성도 차별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에 이르는 경전에 나타난 여성성불을 살펴보면 붓다 재세 시에는 아라한이 되어 해탈 노래를 부른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그 예로 초기 비구니 교단을 이끈 여성들이 수행하면서 종교적 열정과 마음의 역정을 담아낸 <장로니계>는 여성성불을 증거하는 문헌으로 세계 종교 역사에 유례 없는 귀중한 문헌이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부파불교 시대에 이르면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삼종설과 여인오장설 등 여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불교 속으로 유입되어 여성비하 이론의 뿌리를 만든 것이다. 부파불교의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은 여성의 지위 하락은 물론 불교 교리상에서도 '여성불성불설'(女性不成佛說)이라는 심각한 왜곡을 만들어 냈다. 초기 대승경전에서는 이 여성불성불설에 대한 타협으로 변성남자성불설(變成男子成佛說)이 등장하는데, 중기 대승경전에서는 여래장 사상의 기반 위에서 여신성불(女身成佛)이 이뤄진다. 다행스럽게도 대승에서는 <승만경> 등을 앞세워 여성성불을 천명함으로써 다시 붓다의 본뜻으로 회귀하고 있다. 초기불교의 <장로니계>서 본 장로니들의 치열한 구도정신이 <승만경>서 대승 보살정신으로 승화된 셈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마하파자파티서 시작된 불교 여성성불 사상의 역정이 승만 왕비에 이르러 이상적인 정법 실현자로 회향한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여성성불 사상의 흐름을 조망할 때, 그 변천은 결국 남성들에 의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사상, 불교교단을 이끌어 온 주체는 남성들이었기 때문이다. 고조인 붓다가 여성을 인정하고 출가를 허락한 남녀평등의 여성성불 사상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희석되고, 후계자들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이 부정적인 여성성불관을 형성했다. 다시 말해 가섭을 위시한 후대 계승자들의 가부장적 사고로 인한 차별의식으로 여성 편견은 아직도 불교의 저변에 광범위하고 강고하게 존재한다. 이 책은 전개 과정상의 불교적 현실에 대한 정밀한 고증과 그에 따른 불교경전의 이해를 통해, 역사적으로 붓다의 후계자들이 왜곡한 부정적인 여성성불관은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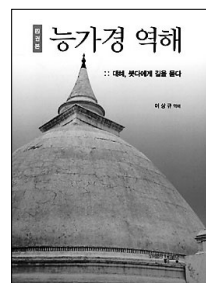
저자 이창숙은?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했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한일보, 한국일보 문화부 기지를 거쳐 동국대 강사, 불교여성개발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인도불교의 여성성불사상에 대한 연구> 등이 있고, 저서 <공자> (1974년 겨울, 유신치하 한국일보 기자노조 투쟁사)가 있다.

老 학자가 법보시로 회향한 '능가경'

능가경 역해

이상규 역해 | 해조음 펴냄 | 1만 8천원



"부처님이 최고의 법조인이자 삶의 나침반을 제시한 인류의 스승"이라며 신심 깊은 불자로 살아온 지 60여 년, 회갑을 불교 공부에 몰두하면서 집필 작업을 통해 불교 교리를 알기 쉽게 전파하며 '법(法)보시'로 아름다운 회향을 하고 있는 이상규 변호사가 이번에는 4권 본 <능가경>을 번역하고 해설했다.

필자가 사권본(四券本)인 능가경, 곧 능가야발다라보경을 집필하고자 마음먹은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이 경이 일찍이 중국 선종(禪宗)의 소의경(所依經)이었다는 점이다. 중국에 들어온(서기 493년으로 전해진다) 보리달마 대사가 이른바 면벽 9년 수행을 마친 뒤 이조(二祖) 혜가에게 법을 부촉하면서 이르기를 "내

게 '능가경' 네 권이 있어 이것을 그대에게 주노라. 이 경은 여래(如來)의 심지요문(心地要門)이니, 여러 사람에게 가르쳐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라."라고 한 다음, 이 네 권 능가경을 전했다는 것이다. 그 후 중국 선종, 특히 남종에서는 적어도 5조(五祖) 홍인에 이르기까지 이 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았다 하니, 이 경의 내용상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는 일이라 하겠다.

능가경, 중국 선종의 소의 경전 화엄경과 견줄만한 방대한 경계

둘째는 이 경이 담고 있는 방대한 경계는 가히 화엄경의 세계와 버릴 만큼 넓고도 크다고 한다. 대개 보살이 제기한 108가지 문제에 관한 부처님과의 대화형식을 취하나, 그 108구(句)는 불교의 거의 모든 문제를 망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은 물론, 흔히 보기 어려운 철학적 접근은 일반 종교서적에서 예가 흔하지 않은 일이다. 특히, 세친(世親: Basubandhu) 이래의 유식사상(唯識思想)이 풍부하게 반영된 점은

다른 경서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다. 이처럼 소중한 경전이 우리의 곁에서 꽤 멀어진 것 같아 그 안타까움을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음을 저자는 밝히고 있다.

변호사이자 법학자인 저자 이상규 박사는 지난해에는 화엄 80권을 3년 만에 모두 번역하고 해설하며 공부했다. 이어 <능가경> 공부에 들어가 그 결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불교 교리에 접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힌다.

저자는 올해 82세이다. 만 19세에 고시 행정과에 그 다음해에 사법과에 합격한 후 미국과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중앙도서관장, 문교부 차관, 고려대 교수, 현대평양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불교관련 저서로는 2000년에 펴낸 <금강경의 세상>을 비롯해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아함경 전권을 주제별로 재분류해 <전해오는 부처님의 가르침> 7권으로 번역, 출간했다. 2006년에는 <경전과 함께 보는 붓다의 발자취>를, 2010년 <교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이어 2011년에는 <법조인이 본 반야심경>등을 펴냈다. 김주일 기자

인도 근본불교 율장 국내 처음으로 완역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외

상징법사 의정 역해 | 보문 스님 국역 | 해인 펴냄 | 3만 2천원



이 책은 인도 불교의 유폴인 설일체유부가 새로운 사상을 정립한 뒤에 완성된 율장으로서, 인도서 가장 발달된 부파불교에서 수지, 수행하며 연구한 율장이

다. 이것을 중국 의정 스님이 한역한 것을 저본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 우리말로 번역, 간행한 것이다.

불교교단의 의사 결정을 위한 행위를 승가갈마, 간단히 갈마(karman)라고도 한다. 갈마는 포살이나 자자와 같은 승가의 규칙적인 행위와 새로운 결정, 논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 승가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회의를 포함하고 있어 항상 일정한 기준에 의해 운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승가의 하나하나 행위가 부처님의 법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상징화 한 것이다. 부처님의 법과 율에 타당하다는 것은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이고 변화가 없으며,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책을 비롯해 이 책에서 번역한 율장들은 인도 근본불교 승가의 율법에 대한 한역서로, 승려들은 붓다가 제정한 계율 조항을 따라서 실천해야 수행을 올바르게 닦을 수 있으며, 붓다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필수 조건이 율

인도 부파불교서 수행한 율장

율장은 불법 펼치는 필수 조건

장인 것을 강조한다. 각 책들의 개요는 이렇다.

이 책 제 1권과 2권에서는 출가의 건도인 삼귀의계, 사미사미니 십계, 식차마나계, 필추필추니계의 작법을 설한다. 제 3권에서는 문도에 대한 내용과 계율에 관해 설명한다. 제 8권에서는 승가 대중의 화합과 장정에 대한 내용을 설하며, 제 9권에서는 멸정법에 대한 내용을, 제 10권에서는 전체적인 갈마를 요약하고, 율장의 번역의

과정과 당부의 글을 밝힌다.

출가는 고대 인도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세존의 탄생과 사리불과 목련 등의 제자들의 출가와 전법의 과정을 엄감연기설에 의해 설명한다. 제 1권에서는 영승왕의 출생과 세존과의 인연담을, 사리불과 목련의 출생과 계급과 가문과 출가과정을 설하고 있으며, 붓다의 오악죄를 따라서 실천해야 수행을 올바르게 닦을 수 있으며, 붓다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필수 조건이 율

이다. 제 2권에서는 사리불과 목련을 제도하는 인연을, 제3권에서는 출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내용을, 제4권에서는 승호 필추의 인연을 통하여 파계의 과보와 오악죄를 저지른 뒤에도 출가의 인연으로 제도 받는 과정을 설명한다.

안거사는 우안거의 인연과 안거방법, 갈마법과 안거를 할 때에 발생하는 일에 대한 대처의 방법을 말한다. 또한 안거하면서 결계를 벗어나는 인연과 기간 등도 구체적으로 밝힌다. 수의사는 안거를 마치고 짓는 수의에 관한 내용을, 수의 중에 발생하는 인연에 따른 욕(欲)에 관해 설하고 있으며, 오부 대중의 좌차에 따른 수위 방법을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디자인 등록원

현 불 샵 단독입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구매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촛대 (大)



촛대 (中)



촛대 (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 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촛대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용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